

전남보건고, 기술을 교육에 녹인다

쌍방향 수업 연수로 면대면 수업 진행 에듀테크 통해 미래수업 지향점 찾아

함평 전남보건고등학교는 지난 3월부터 모든 교사가 온라인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비를 하고, 4월 단계적 온라인개학을 위해 4월 2일과 3일 양일 동안 불갑초등학교 박영민 교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전교사 대상 쌍방향 수업 관련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서 강사는 구글클래스룸을 플랫폼으로 하고 줌을 활용한 쌍방향 수업이 학생들과 소통하며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설명하고 직접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을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정○○교사는 전년도에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으로 3차에 걸쳐 실시한 '에듀테크 활용 방안'에 대한 연수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최○○교사는 "짧은 시간 안에 어

떻게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할지 걱정했는데, 자세한 안내와 실습으로 구글클래스룸과 줌 활용 방안을 터득하게 되어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실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미래수업의 지향점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단계적 온라인개학으로 3학년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1,2학년 교과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3학년 교과담당 교사가 학생들과 쌍방향 온라인 수업하는 모습을 보고,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협의회를 통해 피드백하며 그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전남보건고는 모든 교사가 각 교실에서 정규교육과정 시간표대로 학생을 맞이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



다.

3학년 김00은 "막연하게 가정 학습을 하면서 불안했는데 매시간 선생님과 친구들과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게 되어 반갑고 흥분된다. 처음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지만, 실시간 면대면 수업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 같아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불안감이 해소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구례Wee센터, 온라인 상담 채널 구축

마음 건강 자료 제공

구례교육청 Wee센터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초·중·고 학교 등교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비대면 상담 및 가정방문상담 카카오톡 채널을 구축하였다.

구례Wee센터가 구축한 상담 채널은 카카오톡 검색 창에 '구례Wee센터'를 검색 친구추가로 신청하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문자(전화)상담 및 심리적 불안 해소, 마음 건강 지킴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구례Wee센터의 온라인 상담을 받은 한 학부모는 "코로나 19로 인해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아 여러 가지로 걱정하다 보니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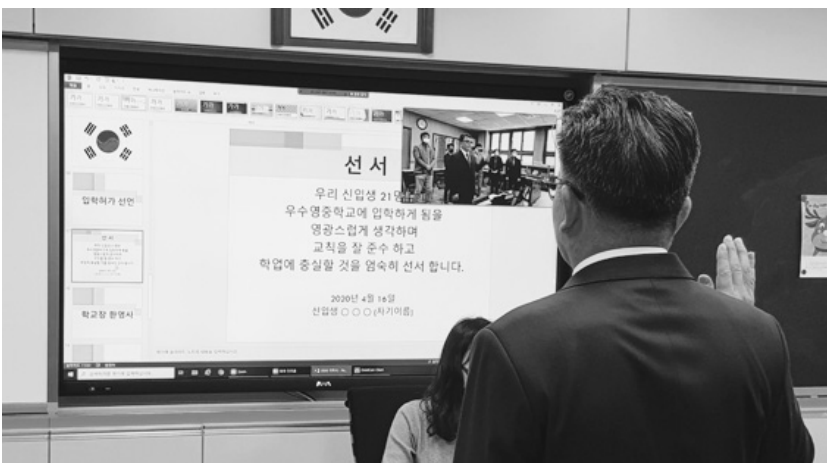
리적 불안감이 있었는데 온라인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고 문자를 남겼다.

임윤덕 교육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등교 일정이 연기되는 상황이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화상담, 문자서비스 등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복귀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Wee센터는 심리·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학생들을 위해 '희망위(Wee)로키트'를 전달하며, 개학연기로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마음 돌봄 지침서도 함께 전달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해남 우수영중, '온라인 입학식' 눈길



해남 우수영중학교는 최근 세월호 참사 6주기이자 중학교 1-2학년 온라인 개학을 맞아 온라인 입학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1

학년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입학식도 없이, 주변의 축하도 받지 못한 채 중학생이 되었다.

우수영중학교 선생님들은 올해

새로이 중학생이 되는 학생들이 온라인 입학식을 통해 중학생이 되는 순간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종래 계획했던 행사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실행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경험을 주는 것도 의미있는 교육활동이라고 협의하고 온라인 입학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이날은 오전 1~4교시까지 전 학년이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시간표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참석이 가능하신 부모님도 자녀와 함께 온라인 입학식에 함께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 후, 5교시에 입학식을 위한 Zoom방을 개설하여 전체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모니터를 앞에 두고 학생들은 각 가정에서,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온라인 입학식을 거행했다.

식순은 간략하게 국민의례, 세

월호 희생자 추모 묵념, 학교장 입학허가 선언, 1학년 학생 모두가 함께하는 입학선서, 학교장 인사말, 교사 소개, 그리고 특별히 마련한 학생회장의 신입생 환영사를 끝으로 온라인 입학식이 끝났다.

이 행사는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온라인 수업을 성실하게 실행해 온 선생님들의 노고와 열정의 바탕 위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자녀의 온라인 입학식에 함께 참여하신 1학년 학부모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차원의 정성과 배려가 학부모님들을 감동시키는 것 같다"며 매우 흡족해 했다.

학교관계자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등교해서 힘차게 뛰놀고 열심히 공부하는 날까지 학생들을 위한 의미있는 교육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정승호 기자



화순교육청, 학생생활지원단 활동 시작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화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역사회와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연합 학생생활지원단이 활동한다.

화순 지역사회연합 학생생활지원단은 총 21명으로 교육청, 학교, 군청, 경찰서 등으로 구성되었다.

학생생활지원단은 앞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 및 유해업소 단속활동, 약물 오·남용, 흡연, 음주 행위 예방지도, 심야시간 청소년 지도 및 가출 예방지도, 골목, 아파트 주차장 등 비행·탈선 예

방지도를 하게 된다.

지난 9일 1차 온라인 개학에 이어 지난 16일부터 초 4~6년, 중 1~2년, 고1~2년이 온라인 개학을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지만 저녁시간에 학생들이 집밖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서 각종 범죄와 탈선에 노출될 염려가 생겨 지역사회연합 학생생활지원단이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오늘 활동에서 만난 학생들은 "항상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니 불안한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였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교육청 교육장, 코로나19 극복 희망메시지 캠페인 동참

광양교육청 조정자 교육장은 SNS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메시지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해당 캠페인은 박원순 서울시장

으로부터 시작된 자목적 캠페인으로, 대국민 응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SNS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의 지명을 받은 조정자 교육장은 지난 16일 개인

SNS를 통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어요, 모두가 함께하면. #힘내라, 우리 학생들! #힘내라, 우리 선생님! #힘내라, 광양교육!"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손으로 쓰고 사

진을 찍어 올렸다.

SNS 게시글을 통해 "온라인 개학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온라인 수업지원 긴급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수업을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전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